

문화정책과 도서관 조직의 강화

사공 철

(한국도서관협회장)

최근의 경제 위기 국면에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역량을 집결하고 새로운 국가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조직의 축소개편 작업을 통해 그러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개편의 방향이 계량 위주로 흘러, 여전히 문화정책 부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어, 이번도 예전처럼 그저 조직의 몸통을 줄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당장의 예산 절감이나 공무원 수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위기극복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정부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문화력이 주요한 국가경쟁력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 개편도 경제분야와 함께 문화, 정보, 지식부문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만든 영화 한 편이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 나라가 자동차 150만대를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과 맞먹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경쟁력을 재편하는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문화적 능력 개발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을 돌아보자. 사실 우리는 훌륭한 문화를 물려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를 현재화하고 재생산하는 일을 소홀히해 온 탓에 지금 우리는 새시대에 걸맞는 국가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경제성장 일변도로 달려가다가 지금에 이르러 허망하게 무너진 것은 이를 버텨줄 수 있는 든든한 문화적 바탕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그럼 이러한 문화경쟁력은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 문화도 여러 부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문화역량을 담고 있는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선 아직도 도서관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잘 모르고 있지만, 최근 미국의 빌 게이츠가 4억달러에 달하는 현금과 장비를 자국의 도서관 발전을 위해 기부한 사실에서도 왜 선진국들이 도서관에 많은 투자를 하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좋은 도서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들 나라는 21세기엔 개개인의 문화·정보능력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개인들의 능력 신장은 궁극적으로 좋은 도서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간파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매우 열악한 우리 나라 도서관들을 방치한 채 과연 새롭게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다행이도 요즘 직장을 잃게 된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아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뒤늦게나마 국민들이 좋은 도서관이 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 높은 대안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들리는 바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국가의 도서관 정책기구까지도 오히려 축소하려 한다고 한다. 특히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과 조직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코 올바른 방향도 아니며 과연 새 정부가 진심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를 의심케 하는 일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적으로는 전국 1만여개 각종 도서관을 총괄하는 기능과 국가의 문헌정보 표준화, 국민독서운동의 시책을 담당하는 등 국가의 정보능력을 신장하는 중심기관이며, 대외적으로는 각국 도서관들과의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가야할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대표기관이다. 그러한 중차대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직급이 현재 1급으로, 대부분 장·차관급 상당의 전문직으로 예우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크게 뒤져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이것마저도 하향 조정하고, 그 아래의 보조기구까지 무리하게 줄여서 전문직의 입지를 축소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이제야 말로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좋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자의 경쟁력 향상 노력을 지원할 때이다. 이와 함께 같은 맥락에서 문화체육부 내에 있는 “도서관·박물관課”도 그 기능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정부조직의 개편 방향은, 정부의 권력적·통제적 간섭을 크게 줄이는 대신 보장적·복지적 기능을 강화하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전있는 정부라면 마땅히 이러한 문화부문이 제대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며,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바로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강력한 공교육과 좋은 도서관이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가능케 하는 두 기둥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국민의 정부’는 실속있는 조직개편을 통해 이번에는 기필코 문화가 꽃을 피우는 새 국가의 미래를 열어줄 것을 바란다.